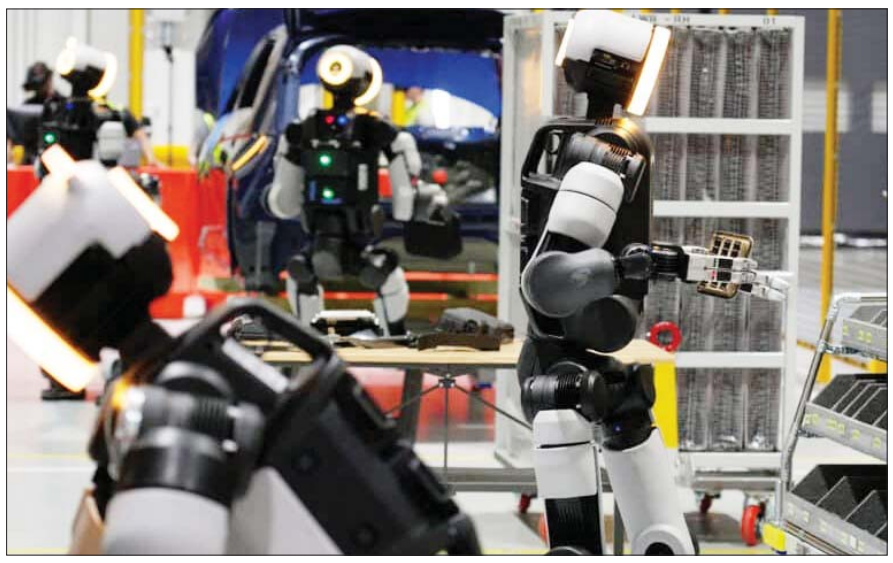
美 생산 확대에 인건비 부담… GM·현대차, 로봇 자동화 속도

GM, 2028년까지 자동화 20% 확대
현대차, 美 공장에 휴머노이드 투입

부품운반·조립공정 자동화 추진
인건비 절감·생산성 향상 기대
초기 투자·설비 전환 비용 부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내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에서 자동차 제조 작업을 학습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보스턴다이나믹스

제너럴모터스(GM)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생산 확대에 맞춰 로봇 자동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GM은 부품 운반용 로봇을 늘리고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의 생산공정 투입을 추진한다. 높은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초기 투자비와 설비 전환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로이터는 지난 17일 GM이 2028년까지 북미 공장의 로봇·자동화 활용을 20%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GM은 인디애나주 코코모 공장에서 로봇을 자체 개발·조립하며 공장 내 부품 운반용 자율이동로봇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자동화 확대는 부품 공급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GM은 신규 계약에 입찰하는 협력사에 자동화 계획을 요구하고 평가 결과를 계약 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에는 미국 제조비용 상승이 있다. GM은 2023년 전미자동차노조(UAW)와의 임금협약 당시 차량 한 대당 인건비가 약 575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로이터는 인건비와 미국으로 생산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자동화 확대 요인으로 짚었다.

현지 생산시설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GM은 지난해 미시간·캔자스·테네시주 3개 공장에 약 40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도 2025~2028년 자동차·철강·로봇 등 미국 사업에 총 26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생산 확대와 함께 현지 비용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진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공정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2028년부터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투입한다.

부품을 조립 순서에 맞게 분류·배치하는 서열 작업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부품 조립으로 범위를 넓힌다. 기아도 2029년 하반기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조지아의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는 이를 위한 학습·검증 거점이다. 실제 제조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작업을 훈련하고 확보한 데이터를 로봇 성능 개선에 활용한다. GM이 부품 운반 자동화를 확대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가 맡을 수 있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다만 로봇 도입이 곧바로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비 구매비 외에 센서 설치와 작업장 변경,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UAW가 GM의 자동화 계획을 일자리 축소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등 고용 문제도 변수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인건비가 워낙 비싸 현지화로 관세를 피하더라도 과도한 인건비가 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그런 부분을 로봇으로 자동화하려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로 계산했을 때가 2년 정도"라면서도 "로봇을 적용하기 위해 곳곳에 센서를 붙이거나 통로나 작업장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사람과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나오기까지 빨라도 3년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BMW·벤츠·제네시스, 프리미엄 SUV 3파전

BMW X5, 주행성능 강화
벤츠 GLE, 디지털 사양 확대
GV80, 연비·가격 경쟁력 확보

BMW와 메르세데스-벤츠가 신형 X5와 GLE를 앞세워 하이브리드를 추가한 제네시스 GV80과 국내 프리미엄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시장에서 경쟁한다. 독일 두 브랜드는 주행성능과 디지털 사양을 강화했고 제네시스는 연료 효율과 가격을 앞세워 수요 확보에 나섰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 16일 5세대 완전변경 모델 '더 뉴 BMW X5'의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같은 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 GLE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했다. 제네시스는 지난달 6일 브랜드 첫 하이브리드 모델인 GV80 하이브리드를 선보였다.

세 모델은 고급 SUV 고객을 겨냥하지만 상품 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X5는 가솔린과 디젤을 유지하면서 디자인과 주행 기술을 바꿨다. GLE는 디지털 편의사양을 강화했고 GV80은 하이브리드를 더해 동력계 선택지를 넓혔다.

구매 가격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다. 신형 X5는 1억2000만~1억3500만원, GLE는 1억3670만원이다. GV80 하이브리드는 7680만원부터 시작한다. 다만 기본 사양과 선택 품목에 따라 실제 구매 가격은 달라진다.

주행성능과 승차감을 높이는 방식도 다르다. X5는 가솔린 '40 xDrive'와 디젤 '40d xDrive' 등 2개 동력계, 총 6개 트림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사전예약을 받는다. 에어 서스펜션과 뒷바퀴 조향 기능을 기본 탑재해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개선했다.

GLE는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9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했다. 에어 서스펜션과 가변 댐핑 시스템으로 노면과 주행 상황에 대응한다. 부드러운 동력 전달과 차체 움직임 제어를 통해 승차감을 높였다는 게 벤츠 측 설명이다.

GV80 하이브리드는 후륜구동 기반 2.5ℓ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다. 시스템 합산 최고출력은 352마력으로 기존 2.5 터보보다 약 16% 높다. 복합연비는 19인치 휠을 장착한 2륜구동 5인승 기준 12㎞/ℓ로 기존 가솔린 모델 대비 29% 개선됐다.

실내에서는 X5와 GLE의 디지털 기술 경쟁이 두드러진다. X5는 파노라믹 iDrive를 적용하고 트림에 따라 동승자용 화면도 제공한다. 외관에는 차세대 디자인 방향인 '노이어 클라쎄'를 반영했다.

GLE는 차량 운영체제 'MB.OS' 기반의 4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를 탑재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 3개를 하나의 유리 패널로 통합한 'MBUX 슈퍼스크린'으로 운전자와 동승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지원한다.

기존 판매에서는 X5와 GLE가 근소한 차이로 경쟁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10월 X5의 국내 신규 등록은 5544대로 GLE·GLE 쿠페 합산 5339대를 205대 앞섰다.

GV80은 하이브리드가 출시 첫 달부터 가솔린 판매를 웃돌았다. 지난달 959대가 판매돼 전체 GV80 판매량 1814대의 52.9%를 차지했다. 새 동력계가 초기 수요를 확보한 셈이다. /이승혁 기자 sh95@

김준석 "하나의 목표로 역량 결집"

〈대한전선 사장〉

임직원과 '얼라인먼트 데이' 개최
전기화 흐름 속 성장 기회 강조



김준석 대한전선 대표이사 사장이 임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전선

"목표는 하나로 갖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은 치열해야 한다."

김준석 대한전선 사장은 18~19일 서울 서초동 본사와 충남 당진케이블공장에서 열린 임직원 소통 행사 '얼라인먼트 데이(Alignment Day)'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의 역량을 연결할 때 대한전선의 경쟁력이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전기화라는 거대한 산업 변화가 대한전선에 기회가 되고 있다며 이를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조직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성장에 따른 결실은 임직원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업의 성과가 임직원의 보람과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임직원의 성장과 몰입이 다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며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하는 직원이 빛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취임한 김 사장은 중장기 비전과 경영 철학을 임직원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얼라인먼트 데이'를 마련했다. 행사명에는 경영진과 임직원이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을 한 방향으로 맞춘다는 의미가 담겼다. 해외 사업장과 시공 현장 임직원도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먼저 수주와 실적, 재무·투자 현황 등 경영 현황이 공유됐다. /원관희 기자

LIG D&A, 입찰 제한 피했지만 수주 불안

법원, 방사청 제재 집행정지 인용
1.9조 규모 유도탄 사업 협상 지속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당장의 입찰 제한을 피했지만 주요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의 발주·생산계획도 영향을 받는 만큼 해외 고객의 신뢰까지 고려한 경영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방위사업청의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당장의 신규 수주 차질을 피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LIG D&A가 방사청 처분에 불복해 낸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 집행은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12월 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KF-21 탑재용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사업의 후속 협상과 계약 절차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LIG D&A는 지난달 체계완성품과 탐색기 등 5개 세부과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후속 양산을 포함한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조 9000억원이다.

다만 제재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 판결 선고 후 30일이 지난 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국내 매출 비중이 약 75%에 달해 입찰 제한이 시행될 경우 신규 수주와 연계된 부품·장비 발주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협력업체로서도 향후 발주 규모와 시점을 가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소송 결과는 중장기 생산·투자계획의 변수로 남는다.

해외에서는 수주 경쟁 과정에서 기업 신뢰도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경쟁사들이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업체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하나의 무기체계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파장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관희 기자 wkh@

KAI, 미래 항공우주 기술 경쟁력 강화

한국기계연구원과 연구개발 협력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기계연구원과 손잡고 스텔스 성능 고도화와 인공지능(AI) 기반 항공기 제조기술 개발에 나선다.

KAI는 한국기계연구원과 항공우주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AI의 항공우주 체계개발 역량과 한국기계연구원의 원천기술 및 연구 인프라를 연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연구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저피탐 표면 기술과 지능형 금속 적층 등 미래 항공우주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항공기 개발·생산 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핵심기술 및 전문인력 교류,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국책사업 공동 대응, 시험·평가 인프라 활용, 첨단소재·제조 및 AI 기반 기술 고도화 등이다.

특히 한국기계연구원의 신뢰성 검증 및 시험·평가 인프라를 활용해 항공기 성능과 품질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KAI는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기계연구원은 연구성과의 산업 현장 적용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체결 후 열린 기술교류회에서는 항공·방산 부품 신뢰성 평가, 스텔스용 투명 메타 디스플레이, AI 기반 금속 적층 공정기술, 항공기 복사에너지 능동제어 기술 등 4개 분야의 기술 발표가 진행됐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